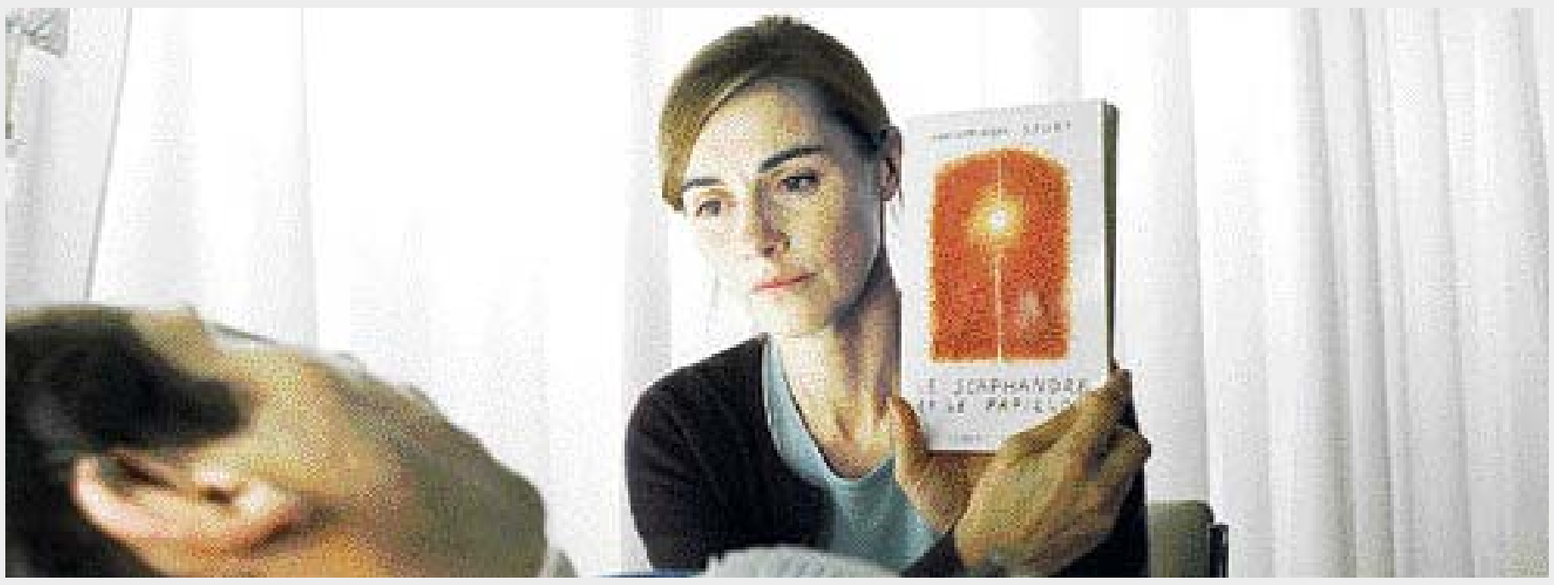
영화제의 추억

■ 광주극장, 3월 한달간 아카데미 등 영화제 수상작 상영



2007 칸느영화제 감독상, 2008 골든글로브 최우수 감독상·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잠수종과 나비'

올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휩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1일 개봉했지만 광주에서는 볼 수 없다. 남우주연상 수상작인 '데어 윌 비 블러드'도 마찬가지.

칸느나 베를린 영화제 등 유럽영화제의 수상작의 경우 "내용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지역 극장가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아카데미상 수상작이 상영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외다.

광주극장에서 3월 한달간 아카데미 수상작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을 상영, 영화팬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7일 개봉한 '잠수종과 나비'를 시작으로 21일 개봉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영화 개봉 시기와 시간표는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하면 된다.

▲잠수종과 나비

2007 칸느영화제에서 감독상, 2008 골든글로브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불의의 사고로 왼쪽 눈꺼풀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패션 전문지 '엘르' 편집장장 도미니크 보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깨어난 장은 자신의 신체에서 오직 왼쪽 눈꺼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은 15개월의 시간과 20만 번의 눈꺼풀의 움직임으로 130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쓰며 사람들과 소통한다.

주인공 눈의 시점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준다. 〈12세 이상 관람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 6편
베를린영화제 초청작 '밤과 낮'도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

2007 유럽 바바리안 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사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한적한 농장에서 돼지, 닭, 오리를 키우며 혼자 사는 엠마와 결벽증 때문에 변변한 데이트 한번 못해본 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빗 속을 질주하다 교통사고로 엠마 농장에 불시착하게 된 막스는 나름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

엠마의 농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든 막스는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려 하고, 엠마에게 한가지 부탁을 한다.

클라우디아 슈라이버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며 '글루미 선데이'의 각본가 루스 도마가 원작자와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마지막 엔딩신이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데미언 라이스의 음악도 분위기를 돋운다. 〈18세 이상 관람가〉

▲4개월, 3주… 그리고 2일

2007 칸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1987년 낙태가 금지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 아래 억압된 인간의 욕망을 리얼하고 충격적인 영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평범한 여대생인 기비타는 몸 속에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을 낙태 시키기 위해 친구 오필리아와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

감독은 독재 정권의 폭압이 개인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18세 이상 관람가〉

▲데어 윌 비 블러드

연기파 배우 대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나의 왼발'에 이어 두번째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으로 탐욕에 눈에 멀어 정신적으로 몰락해 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889년 미국의 사막.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다니엘은 운 좋게 유전을 발견하고 이후 캘리포티아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된다. 다니엘을 끊임업이 부에 집착하며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데….

업톤 싱클레어의 '오일'이 원작으로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는 않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올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작품상, 각색상, 남우조연상 등 4개 부문을 휩쓴 작품이다. '서부의 섹스피어'라는 평을 얻은 미국 소설가 코맥 매카시 작품을 '파고' 등의 코엔 형제가 공동 각본을 통해 영화로 만들었다.

사막 한 가운데서 우연히 돈가방을 손에 넣게 된 한 남자와 가방을 가로채려는 잔인한 킬러, 그들을 쫓는 늙은 보안관이 얼키고 설키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18세 이상 관람가〉

▲밤과 낮

영화제 수상작은 아니지만 2008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작품이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오 수정' 등을 통해 마니아 팬을 확보하고 있는 홍상수 감독 작품으로 박은혜·김영호·황수정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父子경찰' 투캅스계 코믹 액션물

주목! 이 영화 '마이 뉴 파트너'

전혀 성격이 다른 부자(父子) 경찰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 액션물이다.

경찰 이야기인 '투캅스' 시리즈를 통해 박중훈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가 이번에는 꽃미남 배우 조한선과 한 배를 탔다.

경찰대학 수석 졸업에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냉혈한 강영준은 경찰 내에서 '경찰견'으로 통하는 내사과 경위다. 반면 그의 아버지인 인정 많고 능청스러운 풍속과 만년 반장 강민호는 가진 연륜을 활용한 육감 수사를 제일로 치는 일명 '똥파리 형사'다.

동료 형사의 비리 사건이 마약 유통망은 물론 경찰 내부와 깊게 연루되어있는 엄청난 사건임을 간파한 영준은 공조수사를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8년째 왕래 한 번 없던 아버지와 '파트너'가 된다.

서로 내기키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시작한 두 사람은 사건이 경찰 내부와 깊숙이 관련돼 있음을 발견하는데….

조한선의 친동생이 조한선의 어린 시절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끈다. '슈퍼스타 감사용'을 만든 김종현 감독 작품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27번의 결혼 리허설 지겹도록 들러리만 섰던 그녀가 제짝 찾기에 나선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마이 뉴 파트너 15년만에 돌아온 비리 형사 안성기와 열혈형사 조한선이 만났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집결호 죽지못해 사는 한 군인의 고통을 그린 전쟁 후일담. 12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왕가위 감독이 영미권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첫 번째 영화.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바보 강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차태현, 하지원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밴티지 포인트 8명의 시점으로 대통령 암살을 포함한 3번의 테러 사건을 재구성했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하미
워 동서양을 대표하는 액션 병기 이연걸과 제이슨 스테이섬이 만났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하미
람보4 : 라스트 블러드 20년 만에 돌아온 람보.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 감독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쿵푸 덩크 쿵푸와 스포츠에 주성치식 코미디가 이번엔 농구로 돌아왔다. 15세 관람가.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사랑보다 황금 이혼소송을 막 끝마친 두 남녀가 보물을 찾기 위해 뭉친다. 12세 관람가.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롯데(첨단)
데스노트 : 새로운 시작 전편에 이어 최후의 23일동안 새로운 사신과의 대결을 그렸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주노 16세 소녀의 임신과 입양이라는 소재를 유쾌하게 그린 성장 드라마. 12세 관람가.	엔터
추격자 쫓고 쫓기는 연쇄살인마와 전직 경찰 이야기. 18세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점퍼 공간이동을 하는 액션 히어로의 이야기.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하미